

구약논단

제 16권 3호(통권 37집) 2010년 9월 30일

차 준희(한세대)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도서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194**
이 글은 주석과 설교의 간극을 좁히는 일, 성서연구의 아카데미즘(전문성)과 저널리즘(대중성)의 가교하는 일이 오늘날 성서학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도서 9장을 신학적으로 주석하고, 그 메시지를 끌어냄으로 설교자들에게도 유익한 분석이 되었으면 한다.

Cha, Jun-Hee The Wisdom from a Grave: The Exegesis and
the Message of Ecc. 9 **194**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¹⁾

차 준희 | 한세대

1.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성서적 설교의 부재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의도와는 무관한 설교자의 개인적 의도가 앞서서 말씀 선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은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우선 성서학자들이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를 성서학의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성서학자들의 성서 해석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아니면 목회적 실용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다. 이 글은 주석과 설교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오늘날 성서학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카데미즘(전문성)과 저널리즘(대중성)의 가교는

1) 이 글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돕는 월간지 “월간 프리칭”에 투고(2010년 9월호)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 전면 개정과 보강 그리고 각주 제시를 통한 심화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것임을 밝혀준다.

우선 성서학자들의 선도적 자세가 요청되는 일이다.

이 글은 전 9장에 주목하고, 이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추출하려고 한다. 전 9장을 신학적으로 주석하고, 그 메시지를 끌어냄으로 설교자들에게도 유익한 분석이 되었으면 한다. 전 9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메멘토 모리(전 9: 1-6), 둘째, 카르페 디엠(전 9: 7-10), 셋째, 시기와 우연(전 9: 11-12), 넷째, 지혜의 능력과 무능력(전 9: 13-18)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9: 1-6 메멘토 모리
- 2) 9: 7-10 카르페 디엠
- 3) 9: 11-12 시기와 우연
- 4) 9: 13-18 지혜의 능력과 무능력

2. 본문 주석

1) 메멘토 모리(전 9: 1-6)

전 9장 1-6절은 죽음 앞에서의 삶에 대하여 다룬다.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 1) 1a절: 인용의 도입구(“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 2) 1b절: 인용(“의인들과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 3) 1b-3절: 전도자의 비판적 논평,
- 4) 4절: 인용(“산 자들에게는 소망이”),
- 5) 5-6절: 전도자의 반박(“산 자들은 죽는다는 것만 안다”).

전 9장 1절은 애매하고 불명확한 진술을 담고 있다.²⁾ 전도자는 전 9장 1절 앞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이라는 도입구로 시작한다. 여기서 전자의 “이 모든 것”은 바로 앞 구절의 논의의 결과(전 8: 10-15, 16-17)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과의 개념이 늘 통용될 수는 없다”(전 8: 10-15)는 것과 “지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다”(전 8: 16-17)라는 것이다. 전도자는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는다. 이제는 또 다른 후자의 “이 모든 것”을 검토하

2) R. E. 머피, 「전도서(WBC 성경주석)」(김 귀탁 역), (서울: 솔로몬, 2008), 261쪽.

려고 한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을 가리킨다. 그 내용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이다. 이 내용은 전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동시대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³⁾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이다(인과응보 논리의 수용). 전도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이미 전 7장 15-20절과 8장 10-14절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진술한 바 있다(무조건적인 사과응보 논리의 거부). 사과응보 논리가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도자의 입장이다.⁴⁾

이 인용 구절의 의미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또 한 가지 점이 불분명하다. 이 구절은 “죽음 이전”의 상황⁵⁾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의 상황⁶⁾과 연관된 것인지가 논란이 된다. 즉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사과응보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죽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를 문제이다. 이 구절은 죽음 이후의 사과응보 논리의 성취를 논하는 것으로 보인다. 죽음 이후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는 점은 지혜서 3장 1-3절에서도 명백히 언급된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재앙으로 생각될 것이며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의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또한 죽음 이전, 즉 “이 세상에서의 사과응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전 8장 12b-13절과 8장 14절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서 “저 세상에서의 사과응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3) T. Krüger, *Kohelet(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298쪽.

4) 최근에 전 9장 1-3절의 사과응보의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문제’라고 논증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A. Schellenberg, *Erkenntnis als Problem: Kohelet und die alttestamentliche Diskussion um das menschliche Erkennen*, OBO 18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169-172쪽; L. Mazzinghi, “The Divine Violence in the Book of Koheleth”, *Bib* 90, 2009, 545-558쪽.

5)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T. Krüger, *Kohelet (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300쪽.

6)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K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K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179-180쪽.

전도자는 저 세상에서의 인과응보 논리의 통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전 9: 1b).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הכל לפנייהם) 하콜 리프 네헬/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이다. 사람은 죽음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즉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인식을 넘어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여기서 사후(死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벌에 대한 인간의 확신을 문제 삼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사랑)을 받을지 벌(미움)을 받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인과응보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대인들의 경건한 견해에 대하여 전 9장 1b절에서 비판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⁸⁾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2절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운명이 닥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כֹּל אֶחָד מִכֹּל מִיִּקְרֶה אֶחָד/한 운명)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언급된 서로 구분되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총괄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 대표적으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결국은 동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모두가 ‘한 운명’이다’(כֹּל אֶחָד מִכֹּל מִיִּקְרֶה אֶחָד/한 운명)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 운명’은 전 2장 14절과 3장 19절에서와 같이 ‘죽음’을 가리킨다:⁹⁾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כֹּל אֶחָד מִכֹּל מִיִּקְרֶה אֶחָד/한 운명)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전 2: 14).

7)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443쪽.

8)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181쪽.

9)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92쪽.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מִכְּרֵי אֲחֵרִים 미크레 에하드/한 운명)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헛됨이로다”(전 3: 19).

그런데 전 9장 2-3절에서의 운명은 죽음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전 9장 3a절은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한 죽음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מִכְּרֵי אֲחֵרִים 미크레 에하드/한 운명)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여기서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 없이 동일하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런데 3b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רָע 라)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구절은 전 8장 11b절의 진술과 유사하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 8: 11b). 또한 이 구절은 전 7장 20절과도 관련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진술은 성서적 전통이기도 하다(창 8: 21; 왕하 8: 46; 시 51: 5; 143: 2; 잠 20: 9). 전도자는 여기서 의인의 잘못된 자기 확신을 문제 삼는다. 어떤 인간도 자신이 선한 일만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 오직 사랑만 받지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여기서도 전통적인 지혜 전승을 상대화시키고 있다.

이 단락의 전반부(전 9: 1-3)가 인용(전 9: 1a)과 비판적 논평(전 9: 1b-2)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후반부(전 9: 4-6)도 인용(전 9: 4)과 반박(전 9: 5-6)으로 결합되어 있다. 인용구인 전 9장 4절은 이의 제기(4a절)와 근거(4b절)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 9장 4a절은 전도자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전도자는 전 9장 3b절에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과 미친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מִכְּרֵי אֲחֵרִים 베하에헴/인생의)를 직역하면 “그

10)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47쪽.

들이 살아 있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살아 있는”이라는 동사의 어근은 **חיה** (하야/sein)이다. 전 9장 4a절의 “산 자들”은 히브리어로 **בני חיים** (하하임)으로, 이 분사형의 어근이 동일한 **חיה**(하야/sein)이다. 전 9장 4a절은 의도적으로 **חיים**(하야/sein)이라는 핵심어를 되짚고 있다.

전도자는 9장 3절에서 살아 있는 자의 마음에는 악과 미친 마음이 가득하다고 본 반면, 인용 구절인 4절은 살아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소망이란 인간이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을 말한다.¹¹⁾ 이러한 점, 즉 회개의 희망도 성서 전통에서는 폭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간은 회개, 즉 죄의 고백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시 32편; 51편; 130편; 겔 18장). 따라서 이 인용구는 전 9장 1a절의 인용구(“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와 맥을 같이 한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면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견해와도 잘 들어 맞는다.

전 9장 4b절은 4a절의 이의 제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은 아마도 당시 통용되던 격언일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개는 최고의 경멸의 대상이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삼상 17: 43; 참조. 잠 26: 11; 출 22: 31; 신 23: 18; 계 22: 15).¹²⁾ 이와는 달리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고(암 3: 8),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서, 어느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동물의 왕으로 간주되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잠 30: 30; 참조. 창 49: 8; 삼하 17: 10; 호 5: 14). 이 격언은 삶이 죽음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실감나게 입증해 준다. 이러한 격언은 살아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진술을 강화해 준다. 살아 있기만 한다면 희망은 있다. 회개와 용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놓이는 존재가 되리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전 9장 5-6절에서 인용구의 주장을 반박한다. 전도자는 전 9장 4절의 핵심어인 “산 자들”(**בני חיים** 하하임)이라는 용어를 5절에서 다시 한 번

11)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448쪽.
12) P. Maiberger, Art. “Hund”, *NBL* 2, 203-204쪽.

사용한다: “산 자들(יִרְמֵי 하하임)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니라”(전 9: 5). 전도자도 ‘산 자들’에 관하여 언급하지만, 인용구의 진술과는 다르게 말한다. 산 자들에게는 있고, 죽은 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인식이다. 여기서 전도자의 해석과 인용구의 주장이 갈린다. 산 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5a절).¹³⁾ 전도자는 다시금 죽음의 주제를 붙잡는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에 불과하다.¹⁴⁾ 인간의 인식은 죽음의 경계에서 멈춘다. 인간은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당연히 인간은 죽음 이후의 희망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전 9장 1a절과 4절의 인용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인과 지혜자의 죽음 이후의 희망 기대가 거부된다.¹⁵⁾

전 9장 5b절의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니라”는 묘사에는 언어유희가 담겨있다.¹⁶⁾ 죽은 자들은 상(שכר 사카르)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기억(זכר 자카르)이 잊혀지기 때문이다. 사실 죽은 자의 ‘보상’(שכר 사카르)은 그에 대한 ‘기억’(זכר 자카르)이 전부였다(참조. 전 8: 10). 인간은 죽음 이후 결국 잊혀진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인간에 주어진 시간은 죽음 이전의 삶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도자는 죽음 이후의 불확실한 것에서 눈을 돌려 죽음 이전의 현실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전 9장 6절은 1b절의 ‘사랑’(אהבה 아하바)과 ‘미움’(שנאה 신아)이라는 용어를 다시 언급한다. 이를 통하여 전 9장 1-6절은 수미쌍관(inclusion)을 이루게 된다.¹⁷⁾ 전 9장 6절은 동시에 이를 사람과 연결시킨다: “그들의 사랑(אהבה 아하바)과 ‘미움’(שנאה 신아)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사랑과 미움은 물론 시기도 모두 사라진다(전 9: 6a).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전혀 없다(전 9: 6b).

13) 머피, 「전도서」 263쪽.

14) 이 성훈 외, 「전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 HOW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88쪽.

15) L. Schwiemhorst-Schönberger, *Kohélet*, 449쪽.

16) 머피, 「전도서」 263쪽.

17) 머피, 「전도서」 263쪽.

전 9장 6b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뭇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의 뭇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즉 죽음 이후의 보상(뭇)이 아니라 죽음 이전의 보상(뭇)이다. 저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말한다. 전도자는 여기서 죽음 이후의 인과응보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¹⁸⁾ 죽은 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 땅의 삶에 참여한다는 사상을 거부한다.¹⁹⁾ 고대 근동의 사상에 따르면 죽은 자는 그림자의 형태로 혹은 유령의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서 산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동양 사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흔한 사상이다. 전도자는 죽은 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당시의 보편적 사고를 거부한다. 전도자에게 죽음은 이 땅의 존재와의 단절을 가져온다. 죽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כֹּשׁ 사카르)도 없고, 뭇(פְּלִיג 헬레크)도 없다.

2) 카르페 디엠(전 9: 7-10)

전 9장 1-6절이 ‘죽음’에 관하여 다루었다면, 7-10절은 ‘삶/인생’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단락은 요구와 근거로 구성된 세 가지 연(聯)으로 되어 있다:

- 1) 7절: 요구(“가서, 먹고, 마셔라”, 7a절)와 근거(7b절),
- 2) 8-9절: 요구(“희게 하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즐겁게 살아라”, 8-9a절)와 근거(9b절),
- 3) 10절: 요구(“힘을 다하라”, 10a절)와 근거(10b절).

전 9장 7-10절은 전도서에서 카르페-디엠(오늘을 즐겨라) 모티브가 가장 폭넓게 전개된 부분이다. 첫 번째 연(7절)은 다음과 같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첫 단어 “가서”(לֵךְ 레크)는 여기서 감탄사로 ‘당장/앞으로/자 그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두 가지 명령(“먹어라, 마시라”)을 강화한다.²⁰⁾ 지금까지 전

18) 이 구절은 사후의 인과응보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Kohelet*, 177-178쪽.

19)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50쪽.

20)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

도서는 주로 숙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참조. 전 3: 22 등). 그러나 여기부터는 강한 호소가 나오기 시작한다. 전 9장 7a절은 “기쁨으로”와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먹고 마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도서 내에서는 오직 9장 7절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의 대상이 ‘빵’(חֶמֶץ 레헴)과 ‘포도주’(יַיִן 야인)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빵은 물과 더불어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과 빵과 옷, 그리고 몸담을 집,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다”(집회서 29: 21; 참조. 출 23: 25).²¹⁾ 여기서 빵은 빵이 주식인 문화에서 나온 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여기서 빵은 ‘양식’을 가리킨다. 우리 식으로 하면 ‘밥’을 뜻한다.²²⁾ 포도주는 빵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에서는 기본 식량이며서도 주식에 속한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 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느 5: 11; 참조. 신 8: 8). 빵과 포도주는 선한 창조주의 선물로서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시 104: 15).

전 9장 7b절은 “왜나하면”(כִּי 키)[우리성서에는 누락됨]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이 구절은 빵과 포도주를 즐기라는 명령의 근거로 “왜나하면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즐기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셨기 때문이다”고 명백히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즐김에 대하여 언급했던 수준을 넘어선다. 여기서 “이미”(כִּי 케바르)라는 시간적 진술은 ‘사전에 정해진 원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빵’(חֶמֶץ 레헴)이라는 단어가 성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창 3장 19절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חֶמֶץ 레헴/빵)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 19).

창 3장 19절에서는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자신의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진술된다. 창세기의 이 구절과 관련하여 본다면, 전 9장 7절은 이에 대

회, 2009), 196쪽.

21) W. Dommershausen, Art. חֶמֶץ, *ThWAT* IV, 1984, 538-547쪽, 특히 539쪽.

22)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95-196쪽.

한 방향전환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다. “이미”(כבר 케바르)라는 용어는 오직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단어로서(전 1: 10; 2: 12, 16; 3: 15; 4: 2; 6: 10; 9: 6, 7), 창조의 본래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²³⁾ 또한 “받아들이셨다”는 히브리어로 נָסַח (라차)동사로서, 이는 제의적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흡족하게 수용하셨음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이다(레 1: 4; 미 6: 7). 전 9장 7절은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수용하신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것이 창조주의 본래 의도에 맞춘 삶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연(전 9: 8-9)도 요구(전 9: 8-9a)와 근거(전 9: 9b)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자는 전 9장 8절에서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고 권고한다. 흰옷은 축제의 옷을 의미한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에 8: 15).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주와 같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축제의 절정에 사용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잠 21: 17; 참조. 시 23: 5).²⁴⁾ 여기서 “항상”(תָּמִיד 베콜-에트)이라는 시점은 ‘가능하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의 의미로 이해된다.²⁵⁾ 그러나 전 9장 9절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즉 전 9장 9절은 이 시점을 축제의 식사 시점으로 국한하지 않는다.²⁶⁾ 시점이 평생으로 확장되고 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כָּל-יְמֵי 콜-예메)”,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כָּל-יְמֵי 콜-예메)”(전 9: 9). 따라서 여기서 ‘항상’은 ‘한 평생’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에는 본디 축제적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축제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전도자는 전 9장 9a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23)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58쪽.

24) O. Keel, *Das Hohelied*, (Zürcher Bibelkommentare)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²1992), 50쪽.

25) S. Fischer, *Die Aufforderung zur Lebensfreude im Buch Kohelet und seine Rezeption der ägyptischen Harfnerlieder*, Wiener Alttestamentliche Studien 2, (Frankfurt am Main: Lang, 1999), 74쪽.

26) 전 9장 7-9절을 축제와 관련된 행동으로 해석하는 주목할 만한 학자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R. Lux, “>>Denn es ist kein Mensch so gerecht auf Erden, daß er nur Gutes tue...<<: Recht und Gerechtigkeit aus der Sicht des Predigers Salomo,” *ZThK* 94, 1997, 263-287쪽, 특히 283쪽.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²⁷⁾ 여기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는 번역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아내와 함께 인생[이 단어가 우리 성서에는 누락됨]을 보라”(לֵב אִשָּׁה וְיַי אִתְּךָ 레에 하임 임-잇쇄)이다.²⁸⁾ לֵב אִשָּׁה (레에 하임/인생을 보라)은 다른 곳에서도 같이 여기서도 ‘인생을 즐겨라’라는 의미이다(전 2: 1, 24; 3: 13; 5: 18; 6: 6; 8: 16).²⁹⁾ “아내와 함께”에서 전치사 “함께”(בְּ) 임)는 아내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파트너’임을,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파트너’임을 보여준다.

또한 “네가 사랑하는(בְּ אֶהְבֵּב) 아내와 함께 인생을 보라”에서 암시된 것과 같이, 여기서 ‘즐거움/향유’는 부부간에 나누는 ‘성적인 즐거움’이나 ‘성적인 쾌감’을 가리킨다(참조. 잠 5: 18-20). 그런데 여기서 삶을 즐기라는 권고에는 삶의 무상함이 그 배경이 된다: “네 헛된(בְּ הַבֵּל) 평생의 모든 날...네게 주신 모든 헛된(בְּ הַבֵּל) 날에”(9a절). 여기서 전 9장 1-6절에서 다른 죽음 주제가 새롭게 거론되고,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오늘을 즐겨라) 주제의 중심에 배치된다. 이를 통하여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가 상호 결합된다.³⁰⁾

전 9장 9b절은 이 연(전 9: 8-9절)의 근거를 제시한다: “왜냐하면(כִּי) [우리 성서에는 누락됨]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뭇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אֵיךְ 후)은 7a절과 8절과 9a절에서 요구된 모든 행동보다는³¹⁾ 전 9장 8절과 9a절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 9장 9b절의 근거는 전 9장 8-9절로 국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연으로 구성된 이 단락(전 9: 7-10)은 각기 연마다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1연의 근거-전 9장 7b절; 2연의 근거 - 전 9장 9b절; 3연

27) 여기서 언급된 아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H.-F. Richter, "Kohélet's Urteil über die Frauen: Zu Koh 7,26.28 und 9,9 in ihrem Kontext," ZAW 108, 1996, 584-593쪽.

28) 여기서 ‘아내’로 번역한 히브리어 <잇쇄>는 일반적으로 여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아내’로 보아야 한다는 논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보라: Johan Y. S. Pakk, "A Syntactical and Contextual Consideration of 'šh in Qoh 9:9," VT 51, 2001, 370-380쪽; C. G. Bartholomew,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9). 304쪽.

29) D. Vetter, Art. אִשָּׁה sehen, *THAT* II, 1984, 692-701쪽, 특히 693쪽.

30)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462쪽.

31) 이렇게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462쪽.

의 근거 - 전 9장 10b절). 그렇다면 ‘그것’이란 ‘인생을 늘 축제같이 살고’(전 9: 8),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는 것’(전 9: 9a)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³²⁾ 이 같은 것들이 인간이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뭇”(פֶּןִּי 헬레크)에 해당된다. 그런데 전 9장 9b절의 뭇(פֶּןִּי 헬레크)과 전 9장 6b 절의 뭇(פֶּןִּי 헬레크)은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뭇은 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즉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다.

세 번째 연 전 9장 10절도 요구(전 9: 10a)와 근거(전 9: 10b)로 구성된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냐하면(כִּי) (우리 말 성서에는 누락됨)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³³⁾ 전 9장 10절과 더불어 기쁨의 추구가 적극적인 행동의 추구에 도달하게 된다. 전 9장 10a절은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손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의 힘 안에서 행하라.” 전도자는 전 9장 10a절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 말한다. 사람에게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한에서 말이다(“너의 힘을 다하여/“너의 힘 안에서”). 여기서 “너의 손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는 진술은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일 혹은 당면한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참조. 레 12: 8; 삼상 25: 8). 전도자는 여기서 ‘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일하라고 권고한다.³⁴⁾ 전 9장 10b절은 그 이유를 제시한다.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스올에서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인도하는 삶은 단순히 인생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찾아서 힘껏 일하는 삶이다. 일은 죽음의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회이다. 최고의 평등권자 앞에서 일은 특권의 의무, 즉 자기 만족의 힘이 분출될 수 있는 축복이다. 기쁨과 마찬가지로 일 역시 구체적으로 생명의 원동력이다. 전도자는 점차 고통스러운 일을 생명의 힘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³⁵⁾ 인생의 짧고 허무함은 오히려 삶의 가치를

32) 여기서 그것을 “아내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 Rudman, “Woman as Divine Agent in Ecclesiastes,” *JBL* 116, 1997, 411-427쪽, 특히 421쪽의 각주 31.

33) 이 구절에 대한 최근의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 P. Brown,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Qoheleth’s Work Ethic,” *Int* 55, 2001, 271-284쪽.

34) T. Krüger, *Kohelet(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307쪽.

더 해준다.

3) 시기와 우연(전 9: 11-12)

전 9장 11-12절은 전도자의 관찰(11절)과 평가(12절)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자는 전 9장 7-10절에서 충고를 했다면, 11-12절에서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전 9장 11a절은 당연히 기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현실 사이의 모순을 다루고 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빠른 경주자들의 우승, 용사들의 전쟁 승리, 지혜자들의 음식물 취득, 명철자들의 재물 축적, 지식인들의 총애 수혜라는 다섯 가지 경우들은 당시 젊은 그리스인들의 이상적인 인생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젊은 시절의 스포츠적인 성공, 군사적인 출세, 가정의 형성, 재물 축적, 그리고 도시 국가에서 공적인 영향력 행사 등이다(참조, 마카비전서 1: 14-15; 마카비후서 4: 12-17).³⁶⁾

전도자는 이러한 다섯 가지를 전면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이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을 상대화시키고 있다. 우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높지만 그렇다고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성공 보장은 없다. 여기서는 예외가 강조된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질서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유능함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관찰은 전 9장 11b절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시기”(קַיִם 에트)는 헬라어 καιρος (카이로스)의 의미(‘무르익은 때/적절한 때’)이고(참조. 전 3: 1) “기회”(פֶּגַע 페가)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 ‘우연’이라는 의미이다.³⁷⁾ 적절한 일(예측된 일)과 우연한 일(예측하지 못한 일)이 모든 인간에게 임할 수 있다.

전 9장 12절은 고기잡이와 새 사냥의 비유를 가지고 전 9장 11절에서 관

35) W. P. 브라운, 「전도서(현대성서주석)」(채 은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162쪽.

36) N. Lohfink, *Kohé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71쪽.

37) N. Lohfink, *Kohé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71쪽.

찰한 것을 평가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 물고기 그리고 새는 땅, 물 그리고 공기라는 세 가지 창조의 생명 영역과 관련된다. 인간은 모든 불행과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울무에 붙잡힌 새들은 무기력하게 붙잡혀 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버둥거리며 푸드덕거린다. 그러나 거기서 빠져 나오지는 못한다. 그들 앞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붙잡혀있는 불행의 시기가 온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시점을 알지 못한다. 전 9장 12절에는 그물에 갇혀있는 물고기의 그림이 미결 상태로 남겨 있다. 그런데 죽음 이전의 시간이 시야로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이다.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³⁸⁾

4) 지혜의 능력과 무능력(전 9: 13-18)

전 9장 13-18절은 지혜의 한계 내지는 무기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13절: 도입,
- 2) 14-15절: 역사적인 사례,
- 3) 16절: 잠정적 결론,
- 4) 17-18a절: 지혜에 대한 격언의 인용(지혜에 대한 찬양),
- 5) 18b절: 비판적 논평.

이전 단락인 전 9장 11-12절에서는 인간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패를 아주 일반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면, 이 단락(전 9: 13-18)에서는 지혜의 경우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 9장 11절의 진술 가운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라는 언급에 초점을 맞추고, 이 한 경우, 즉 지혜자의 경우, 좀 더 세분하여 가난한 지혜자의 경우를 자세하게 다룬다. 전도자는 전 9장 13절의 진술로 이 단락을 시작한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여기서 전 9장 13b절의 “내가 크게(**גָּדוֹל** גדול)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는 표현은

38)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74쪽.

전도자가 보기에 흔히 '지혜와 관련하여 간과되거나 은폐되는 중요한 사실'을 가리킨다.

전도자는 전 9장 14-15절에서 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한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을뿐더러 적어도 여기서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³⁹⁾ 그보다는 이 진술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진술 자체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인구도 ‘작은’(קטן 카톤) 어떤 ‘작은’(קטן 메아트) 도시에 ‘큰’(גדול 가돌) 왕이 와서 ‘큰’(גדול 가돌) 흉벽을 쌓고 치려고 하였다(전 9: 14).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지혜자의 조언으로 작은 성읍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전 9: 15a). 이러한 사건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 도성을 지켜내는 일에 한 사람의 예언자 이사야의 조언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된다(참조 사 36 - 39장; 왕하 18 - 20장). 한 도시의 존폐 여부가 한 개인의 지혜로운 판단능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 이후 그 엄청난 일을 해낸 도시의 가난한 지혜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진다(전 9: 15b). 여기서 초점은 지혜자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⁴⁰⁾

전도자는 여기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전 9: 16).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가르침은 전통적인 지혜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 하나니”(잠 24: 5).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도자의 통찰이다. 여기서는 지식(지혜)이 힘(물질)에 예속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결국 가난한 지혜자는 주변인으로 밀려난다. 힘이 없는 지식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지식은 힘이 없다.⁴¹⁾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난한 사람은 거의 힘이 없다

39)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기보다는 그 의도에 주목하는 최근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Z. Weisman, “Elements of Political Satire in Koheleth 4,13-16: 9:13-16,” ZAW 111, 1999, 547-560, 특히 554-560쪽.

40)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00쪽.

41) N. Lohfink, *Kohe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73쪽.

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에서도 널리 알려진 말이다(잠 14: 20; 18: 23; 19: 7).⁴²⁾ 이러한 점은 특히 집회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부자가 미끄러지면 많은 사람이 그를 부축해 주고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찬양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미끄러지면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부자가 말하면 모두가 조용히 듣고, 하늘 끝까지 그의 말을 지켜올린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입을 열면 ‘저게 누구냐?’고 말하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를 짓밟는다”(집회서 13: 22-23).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혜의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즉 지혜의 자신감 내지는 지혜 스스로에 대한 과대 평가가 사실은 거짓이라는 점을 폭로한다. 지혜도 힘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이어지는 전 9장 17-18a절은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오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오니라.” 이 구절은 지금까지의 논리적 흐름에 비추어보아 전도자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전도자가 인용한 전통적인 격언으로 판단된다.⁴³⁾ 이 구절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전 9: 16a)는 전통적인 지혜의 주장을 받아서 이와 관련하여 지혜를 찬양하고 있다. 전 9장 17절은 지혜의 품격을 아주 인상 깊은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은 대조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최소의 단어로 두 가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극적으로 잘 드러낸다. 한 쪽은 ‘고요함’(“조용히”), ‘의사소통’(“들리는”) 그리고 ‘통찰’(“지혜자의 말”)인데 반하여, 다른 한 쪽에서는 ‘고함’(“호령”), ‘권력’(“다스리는 자”) 그리고 ‘우둔함’(“우매자”)이 드러난다.⁴⁴⁾ 전 9장 18a절의 “지혜(단수)가 전쟁 무기들(복수)보다 나오니라”라는 표현은 전 9장 17절의 진술 의도를 한마디로 집약해 준다.

그런데 이어지는 전 9장 18b절의 “그러나 죄인 한(אִישׁ אֶחָד) 사람이 많은(רַב לַרְבּוֹת)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는 표현은 전 9장 18a절과는 전혀 다

42) H. 링그렌/W. 쾰머리, 「잠언/전도서(국제성서주석)」(박 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60쪽.

43) D. Michel, *Kohelet* (EdF 258),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8), 161쪽; 머피, 「전도서」 276쪽.

44)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82쪽.

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 9장 18b절은 전 9장 18a절에 대한 전도자의 비판적 논평이다. 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지혜는 그의 성공 여부를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 지혜의 성공은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자신이 아닌, 예를 들어 어리석은 통치자의 의지라는 외부의 요인에 의존한다. 한 통치자가 지혜로운 조언자의 충고(“지혜자들의 말들”)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지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참조. 전 4: 13-16; 왕상 12: 1-9의 르호보암). 여기서는 “하나”(אֱלֹהִים 에하드)와 “많은”(רַב 라브)이라는 용어가 의도적으로 대조된다. 한 명의 어리석은 통치자는 수많은 지혜자들의 바른 충고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아주 적은 우매함이 많은 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지혜는 한계를 갖는다.

3. 신학적 메시지

1) 죽음 앞에서 오늘을 보라(전 9: 1-6)

전도자는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을 반대한다. 이러한 신학은 인간의 현세적 존재를 몰래 저 세상으로 연장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도자에 대하여 흔히 오해하는 바와는 다르게, 전도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는다. 전도자는 부활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부정한 적도 없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도자는 철저한 단념 속에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만 만족하는 자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스스로 하나님의 현재로 생각하는 미래로 쉽게 도피하곤 한다. 이는 종교적으로 은폐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⁴⁵⁾ 전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생의 “여기와 지금”(here and now)으로 파고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을 기억한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는 확실히 이는 바가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도주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선물이요 응답임을 수용함으로써(전 5: 18-19) 저 세상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메멘토 모리)! 그리고 오늘을 보라!

2) 삶을 즐기시는 예수(전 9: 7-10)

45)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53쪽.

전도자는 카르페 디엠 모티브를 가지고 성서적 전통의 핵심을 재발견한다. 전도자는 카르페 디엠 모티브를 성서적 창조 신학의 지평에서 해석한다. 전도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수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전도자가 이전에도 즐기치게 강조해 온 것과 같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전 2: 24; 3: 13; 5: 18). 인간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전 5: 19).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전 9: 7). 따라서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가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즐거움의 거부는 결국 불신앙의 태도가 된다.⁴⁶⁾ 창조주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왕이었던 전도자가 한때 경험했던 하나님 없는 과도한 누림은 위험하고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전 2: 8; 참조. 눅 12: 19-21).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맘껏 즐기는 것은 참된 신앙적인 삶이다. 나사렛 예수도 무지한 타인들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먹보)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술꾼)로 폄하되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마 11: 16; 눅 7: 34-35). 인간 예수의 그 모습에는 그 동안 무시되어온 또 하나의 신앙적 깊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만이 아니라 ‘삶을 즐기시는 예수’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신앙인의 삶이 균형이 잡힌다. 반쪽 예수만이 아니라 양쪽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3) 인생의 황금기!(전 9: 11-12)

노년과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와 출세의 절정에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은 기대한 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상황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은 경우, 아직은 먼 미래로 보였던 죽음이 바로 문 앞에서 서 있게 된다. 전도자는 여기서 자신의 학생들에게 근거 없는 성공 보장으로 현실을 은폐시키지 않는다. 또한 헛된 성공 보장으로 미래를 장미 빛으로 포장하지도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 시점을 알 수 없이 갑자기 임하는 죽음 앞에 서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아직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은 현 시점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이 아닐까?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더욱이 그 일을

46)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70-471쪽.

조절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 인생의 행복을 감사하고 즐겨야 한다.⁴⁷⁾

4) 지혜의 절대화?(전 9: 13-18)

전통적인 지혜 전승이 주장하는 것같이 보이듯이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과대 평가에 대하여 태클을 건다. 지혜는 그것이 금력(16절)이든지 권력(18절)이든지 간에, 더 큰 힘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전도자는 지혜가 힘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혜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지혜도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지혜도 상대적인 것이다. 전도자는 지혜의 절대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4. 나오는 말: 요약과 결론

첫째, 전 9장 1-6절은 죽음 앞에서의 삶을 다루는 내용이다. 전 9장 1a절 하반절의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와 4절은 전도자가 동시대인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전도자는 여기서 이 인용구(1a절 하반절과 4절)의 주장인 의인과 지혜자의 죽음 이후의 희망 기대(인과응보 논리의 주장)를 반박한다. 전도자는 죽음 이후의 불확실한 것에서 눈을 돌려 죽음 이전의 현실에 주목하도록 한다.

둘째, 전 9장 7-10절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진술한다. 이 단락은 전도서에서 ‘카르페-디엠’ 모티브가 가장 폭넓게 전개된 부분이다. 전 9장 7절의 “빵”(חֶמֶד 레헴)과 오직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이미”(כֶּבֶד 케바르)라는 단어는 창 3장 19절과 연관되며, 빵과 포도주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며 수용하셨음을 암시한다. 삶을 즐기는 것이 창조주의 본래 의도라는 것이다.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것이 참된 신앙적인 삶이라고 한다.

셋째, 전 9장 11-12절은 인간이란 갑자기 임하는 죽음 앞에 서있는 존재임을 밝힌다. 전 9장 11절의 “시기”(שָׁעָה 에트)는 적절한 때(예측된 일)이고, “기회”(פֶּגַע 페가)는 우연한 때(예측하지 못한 일)를 가리킨다. 전 9장 12절은 그물에 갇혀 있는 물고기의 그림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 서있는 존재라는

47) 브라운, 「전도서」 162쪽.

사실을 드러낸다.

넷째, 전 9장 13-18절은 지혜의 한계를 다루는 내용이다. 지혜를 찬양하는 격언인 17-18a절은 인용 구절이다. 전 9장 14-15절의 내용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지만, 그 사건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진술의 의도이다. 전도자는 여기서 지혜에 대한 과대 평가에 대하여 선을 긋는다. 지혜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5. 참고 문헌

- 게제니우스, H. F. W.,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 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김 영진, 「삶의 의미를 찾아서」(서울: 이레서원, 2008).
- 민 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박 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제 8집 (2000), 133-149쪽.
- 브라운, W. P., 「전도서(현대성서주석)」 채 은하(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유 윤중, “전도서 안의 창세기,” 「구약논단」 제 7집 (1999), 95-118쪽.
- 이 성훈 외, 「전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 HOW주석)」(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천 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제30집 (2008), 147-166쪽.
- Backhaus, F. J., *Denn Zeit und Zufall trifft sie alle: Studien zur Komposition und zum Gottesbild im Buch Qohelet* (BBB 83), (Frankfurt am Main: Anton Hain, 1993).
- Bartholomew, C. G.,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9).
- Crenshaw, J. L., *Ecclesiaste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 Domershausen, W., Art. **קֹהֶלֶת**, *ThWAT* IV, 1984, 538-547쪽.
- Fischer, S., *Die Aufforderung zur Lebensfreude im Buch Kohelet und seine Rezeption der ägyptischen Harfnerlieder*, Wiener Alttestamentliche Studien 2, (Frankfurt am Main: Lang, 1999).
- Fox, M. V.,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 Galling, K., *Der Prediger: Die Fünf Megilloth* (HAT 1/18), (Tübingen: Mohr Siebeck, 1969), 73-125쪽.

- Gordis, R.,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³).
- Keel, O., *Das Hohelied*, (Zürcher Bibelkommentare),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²1992).
- Krüger, T., *Kohelet (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Lauha, A., *Kohelet*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ohfink, N., *Kohe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⁴1993).
- Lohfink, N.,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lated by Sean McEvenu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Longman III, T.,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Lux, R., “>>Denn es ist kein Mensch so gerecht auf Erden, daß er nur Gutes tue...<<: Recht und Gerechtigkeit aus der Sicht des Predigers Salomo,” *ZThK* 94, 1997, 263-287쪽.
- Mazzinghi, L., “The Divine Violence in the Book of Qoheleth,” *Bib* 90, 2009, 545-558쪽.
- Maiberg, P., Art. “Hund,” *NBL* 2, 203-204쪽.
- Michel, D., *Qohelet*. EdF 258,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8).
- Michel, D.,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 Pahk, Johan Y. S., “A Syntactical and Contextual Consideration of 'sh in Qoh 9:9,” *VT* 51, 2001, 370-380쪽.
- Rudman, D., “Woman as Divine Agent in Ecclesiastes,” *JBL* 116, 1997, 411-427쪽.
- Rüdiger, L., “>>Denn es ist kein Mensch so gerecht auf Erden, daß er nur Gutes tue...<<: Recht und Gerechtigkeit aus der Sicht des Predigers Salomo,” *ZThK* 94 (1997), 263-287쪽.
- Schellenberg, A., *Erkenntnis als Problem: Qohelet und die alttestamentliche Diskussion um das menschliche Erkennen*, OBO 18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 Schwienhorst-Schönberger, L., *Kohe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 Seow, C.-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 Vetter, D., Art. **ראה** sehen, *THAT* II, 1984, 692-701쪽.
- Vonach, A., *Nähere Dich um zu hören: Gottesvorstellungen und Glaubensvermittlung im Koheletbuch* (BBB 125), (Berlin/Bodenheim: Philo, 1999).
- Weisman, Z., "Elements of Political Satire in Koheleth 4,13-16; 9:13-16," *ZAW* 111, 1999, 547-560쪽.
- Whybray, R. N., *Ecclesiaste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9).

검색어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인과응보의 논리
 지혜와 한계
 죽음 이후의 희망
 즐거움과 창조신학

투고일: 2010년 6월 20일
 심사일: 2010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1일

The Wisdom from a Grave: The Exegesis and the Message of Ecc. 9

Jun-Hee C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This essay suggests a way to fill up a gap between the exegesis of the Bible and preaching, recognizing that it is the important task of today's biblical studies. Building the bridge between Academism(professionalism) and Journalism(popularity) requires a leading attitude of biblical studies scholars first. This essay focuses on Ecclesiastes 9 and finds the meaning and messages of this chapter. I hope this analysis -the theological exegesis of Eccl. 9 and the message from it- to be useful for many preachers to preach it in their churches.

First, Eccl. 9:1-6 concerns the life in the face of death. The latter part of verse 1a "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what they do are in God's hands" and verse 4 are quotation from the speech of Koheleth's contemporaries. Koheleth refutes the quotation(v 1a, 4) that the expectation of hope after the death of the righteous and the wise(cause and effect). Koheleth turns his eyes from uncertainties after the death to the reality before the death.

Second, Eccl. 9:7-10 states the life on this earth. This paragraph is the broadest part extended by the motif 'Carpe-diem.' The food< **אֲכָל** >of verse 7

and the word “already”<כבר> that appears only in Ecclesiastes are related to Genesis 3:19. This verse implies that God already enjoyed and received to eat food and drink wine. This means that enjoying life is the original intention of Creator. Koheleth insists that the true faithful life is to enjoy the gifts given from God in God.

Third, Eccl. 9:11-12 makes clear that human beings stand before the suddenly coming death. “time”<עת>of verse 11 is the appropriate time (expected event), “chance”<פגו> indicates the accidental time (unexpected event). Verse 12 represents, by showing the picture of the fish in a net, that human beings stand before the death.

Last, Eccl. 9:13-18 deals with the limits of the wisdom. The aphorism(격언), in verse 17-18a, that praises the wisdom is a quotation. The content of verse 14-15 introduces a certain historical event but it is not possible and important to identify the event. The important thing is the intention of the statement. Now, Koheleth draws a line at the overrated wisdom. This means that the wisdom also has the limitation.

Keywords

Memento Mori

Carpe Diem

The Theory of Retribution

The Limit of Wisdom

The Hope after the Death

Enjoyment and the Theology of Creation